

개인과 가족의 성격특성이 가족 구성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층모형분석 적용

김 석 선*
(이화여자대학교)

길 민 지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족 성격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구성원(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의 자료 수집 가능여부와 다층모형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예비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아버지, 어머니, 대학생 자녀가 모두 연구에 동의한 65가족으로, 총 195명(아버지 65명, 어머니 65명, 자녀 65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4개 대학의 동아리방과 학생관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우편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Multilevel modeling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독립변수로 1차 수준인 개인의 성격특성과 2차 수준인 가족의 성격특성이 종속변수인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층모형 분석결과, 1차 수준인 개인의 성격특성에서 신경증은 우울을 증가시키고, 성실성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수준인 가족의 성격특성에서는 성실성이 우울을 증가시키고, 친화성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수준의 성격특성은 개인 수준의 성격특성과 함께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성격 특성과 가족 수준의 성격특성을 함께 고려한 우울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주요용어: 대학생, 우울, 다층모형분석, 성격, 가족성격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5R1A2A2A01004575).

* 교신저자: 김석선, 이화여자대학교(suksunkim@ewha.ac.kr)

■ 투고일: 2016.6.7 ■ 수정일: 2016.8.31 ■ 게재확정일: 2016.9.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울증(Depression)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로(Varcarolis, 2014, p.250), 국내 우울증 유병률은 2001년 4.0%에서 2006년 5.6%, 2011년 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특히, 20대, 40-50대 남녀에서 우울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우울증은 자살과 관련이 깊은 정신장애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자살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자살률은 10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가입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OECD 회원국가의 평균 자살률 12.1명보다 2.4배 높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OECD, 2014). 이처럼 우울 및 자살의 증가는 생산성 손실, 만성질환 이환, 의료비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국내에서 우울 및 자살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7년 약 7조 3천억 원에서 2011년 약 10조 8천억 원으로 5년 동안 41.5% 이상 증가하였다(이선미, 백종환, 윤영덕, 김재운, 2013, p.108). 특히, 2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용 중 74.3%로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이선미 등, 2013, p.109).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은 우울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20대, 40-50대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가족으로, 가족생활주기 이론(Carter & McGoldrick, 1988, p.285)에 의하면 '자녀독립기'에 속한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Amett, 2014, p.2) 부모의 품을 떠나 성인으로 그리고 부모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Carter & McGoldrick, 1988, p.294).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학업문제, 취업고민, 경제문제, 대인관계, 가정 및 부모 관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권순일, 2009, p.24; 최승혜, 이해영, 2013, p.813; 하정희, 안성희, 2008, p.1159), 이러한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우울과 자살에 영향을 준다(박재연, 김정기, 2014, p.180). 반면, 부모는 노화가 시작되면서 신체적 변화 뿐 아니라 삶의 무의미함, 공허감, 사회적 은퇴 등 심리·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박봉길, 전석균, 2013, p.168). 또한, 이 시기에 부부 관계는 자녀의 독립과 함께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시작하는데,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줄고 ‘빈 둥지(empty nest)’시기를 맞으면서 중년기를 경험하게 된다(Carter & McGoldrick, 1988, p.285). 이와 같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은 과도기적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관계의 변화로 감정적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성격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성격과 우울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과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개인의 성격(personality)은 유전적이고 타고나는 기질(temperament)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일관된 행동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Klein, Kotov, & Bufferd, 2011, p.2). 성격은 사회-문화적 학습의 영향을 받아 일생동안 발달. 성숙하면서, 기질에 의한 자동적 정서 반응을 조절하여 자극에 대한 최종 반응을 결정한다(Klein et al., 2011, p.2). 이때 똑같은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발달 환경에 따라 성격 형성에 차이를 보이게 되고,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행동 및 정서 반응을 보이며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Hoffman, 1991, p.199).

개인의 성격과 비교하여, 집단 성격(collective personality)은 개인이 타인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집단이 가지는 정서 반응과 행동의 규칙성을 의미한다(Hofmann & Jones, 2005, p.510). 연구자들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집단 성격이 직업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Oh, Kim, & Iddekinge, 2015, p.941). 이때 집단 성격의 개념을 개인이 형성하는 최초의 집단인 가족에 적용하면, 개인은 부모의 성격, 양육태도 등 가족 집단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김미경, 김성현, 김성희, 2007, p.403; 김춘경, 2000, p.37)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가족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개인이 느끼는 우울감의 정도는 개인의 성격특성뿐 아니라, 가족 성격특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동일한 성격특성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영향으로 형성된 가족 성격에 따라 우울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특성을 밝혀내는 데만 중점을 두고, 가족을 단위로 가족구성원 개인의 성격특성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격특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가족의 상호의존성(family interdependence) 안에서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국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이론에 기초하여 성격특성이 정신 질환 및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음을 다양한 집단과 연령에 적용하여 밝혀내고 있다

(John, Naumann, & Soto, 2008, p.116). 성격 5요인 이론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McCrae & Costa, 1987, p.87)은 개인의 성격특성을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 5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5가지 성격 요인은 서로 구분되고 분리된 개념이 아닌, 연속되는 차원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는 것으로 한 개인의 성격구조를 이해하는데 활용된다(Little, 2015, pp.71-72). 높은 신경성과 낮은 성실성이 우울 수준을 높이는 반면, 높은 외향성과 친밀성은 우울 수준을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다 (Giannoni-Pastor et al., 2015, p.29; Kotov, Gamez, Schmidt, & Watson, 2010, p.800).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연구에서는 성격의 5요인 이론에 기초한 성격검사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해외연구결과들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성격구조 척도 Big Five Personality Inventory(Rammstedt & John, 2007)을 이용하여 성격과 우울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다층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하위수준으로는 개인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상위수준으로는 가족구성원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다층모형은 본 연구와 같이 가족을 단위로 하는 연구에서 개인수준의 변수와 개인이 속한 가족수준의 변수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는 사회학에서 자주 쓰이는 고급통계 분석 방법이다(Atkins, 2005, p.99).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이고 하나의 측정수준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통해 서로의 특성을 공유하고(nested) 있는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변수들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아, 일반적인 회귀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할 경우 가설 검정의 타당성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Atkins, 2005, p.1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회귀분석 보다 정교화 된 다층모형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구성원(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개인과 가족구성원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심리적 환경인 가족 안에서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과 가족의 성격특성을 규명하여, 이에 따른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개인과 가족수준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탐색, 분석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수준의 우울 증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연구변수들의 점수분포를 확인한다.
- 다층모형 분석의 가설을 검증한다. 상위 집단 내 개인들의 종속변수인 우울이 유사할 것이다.
- 개인의 성격특성(1차 수준)과 가족의 성격특성(2차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가능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수준의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족수준의 성격특성을 탐색하는 예비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으로, 포함기준은 1)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대학생 자녀가 최소 한명이 있고, 2) 가족구성원(아버지, 어머니, 자녀) 3사람 모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가정이다. 그러나 가족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1) 연구 참여를 동의하지 않거나, 2) 연구기간 동안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하거나, 3)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4개 대학의 동아리방과 학생관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대학생 자녀에게 직접 본 연구의 목적, 내용, 과정 및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설명하였고,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연구 대상자인 아버지, 어머니, 자녀 3인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우편 조사로 설문지를 반송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우송한 후, 아버지, 어머니, 자녀 3인 모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반송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를 희망한 총 585명(195가족)에게 연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336명(112가족)의 설문지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설문지를 완료하지 않아 미회수 되었고, 54명(18가족)은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하여 연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연구 분석에는 총 195명이 1차수준의 분석단위로, 65가족이 2차수준의 분석단위로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도구는 원개발자와 한국어 번역판 도구 표준화 연구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 1) 우울: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조맹제, 김계희(1993)가 번안한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ES-D는 일반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이주동안 경험했던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범위는 최저 0점부터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유력우울증(probable depression)은 16점을, 확실우울증(definite depression)은 25점을 절단점(cut-off point)으로 사용하고 있다(박준혁, 김기용, 2011, p.365). 한국말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연구(조맹제, 김계희, 1993, p.387)에서 Cronbach α =.91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91이었다.
- 2) 성격특성: 성격특성은 성격 5요인 이론(five factor model)에 기초하여 Rammstedt 과 John(2007)가 개발하고 김선영 등(2010)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 단축형 성격

구조 척도(Big Five Personality Inventory: BFI-K-1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단축형 성격구조 척도는 Big Five Inventory(BFI) 44문항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등 성격 5요인을 광범위하면서도 특정하게 대표하는 2문항을 선별하여 10문항으로 개발되었다(John et al., 2008).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5=항상 그런 편)로 측정되며, 점수범위는 최고 5점에서 최저 1점으로 각각의 성격 요인에 해당하는 2문항을 합산하여 평균 값을 구한 값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 관심을 보이는 특성, 친화성은 편안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보이는 특성,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을 지키려는 특성, 신경증은 정서적인 불안정성, 세상을 위협적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특성, 개방성은 다양성, 변화, 지적인 자극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특성을 의미한다. 한국말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연구(김선영 등, 2010)에서 각 요인별 평균 Cronbach's $\alpha = .67$ 였고, 단축형 BFI-K-10는 BFI-K와 모든 성격요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각 요인별 2문항이 5요인 성격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한국어 단축형 성격구조 척도(BFI-K-10)의 타당화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성격특성은 도구의 원점수를 사용하였으며, 가족의 성격특성은 가족별 전체평균(grand mean) 값을 중심화(standardized) 하여 다층모형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족의 성격특성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적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유사한 성격특성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연구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다층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1차수준인 개인의 성격특성과 2차수준인 가족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다층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측정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유사성을 평가하였다. 둘째, 독립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기초모형에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베이지안 정보 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 수준의 독립변수로 개인의 성격특성과 2차 수준의 독립변수로 가족의 성격 변수가 추가된 다층 모형의 BIC를 측정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비교하였다. BIC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분산의 몇%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작은 값이 더 좋은 모형을 의미한다. 이때 종속변수로는 개인의 우울 점수가 사용되었으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나이, 소득(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통제변수로 다층모형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Advanced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층 모형 분석의 검정력을 확인하기 위한 표본 수 산출 기준은 없으나, 다층 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분석단위를 40명에서 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송지은, 소향숙, 2015, p.696). 본 연구의 분석단위인 아버지, 어머니, 자녀는 각각 65명이었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격특성, 우울의 기술적 통계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분석은 <표 1>과 같다. 대학생 자녀의 성별은 ‘남성’ 14명(21.5%), ‘여성’ 51명(78.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65 ± 1.48 세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각각 52.91 ± 3.45 세, 50.42 ± 2.90 세였다. 종교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 ‘없음’이 가장 많았다. 가족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다.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평균은 아버지 3.59 ± 4.52 시간, 어머니 9.23 ± 18.93 시간, 자녀 6.19 ± 8.42 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95)

특성	아버지(n=65)	어머니(n=65)	자녀(n=65)
	M±SD or n (%)	M±SD or n (%)	M±SD or n (%)
연령(단위: 세)	52.91±3.45	50.42±2.90	21.65±1.48
성별			
남성	65 (100)		14 (21.5)
여성		65 (100)	51 (78.5)
교육기간(단위: 년)	16.15±3.52	15.01±3.05	
대학 1학년			5 (7.7.)
대학 2학년			14 (21.5)
대학 3학년			28 (43.1)
대학 4학년 이상			18 (27.7)
수입만족도*	2.86±0.85	2.74±0.87	3.06±0.92
가족과 보내는 시간(시간1주)	3.59±4.52	9.23±18.93	6.19±8.42
주관적 신체건강 만족도†	3.22±0.82	3.68±0.79	3.58±0.81
주관적 정신건강 만족도‡	3.88±0.67	3.71±0.91	3.80±0.82
종교			
개신교	25 (38.5)	30 (46.2)	25 (38.5)
천주교	8 (12.3)	12 (18.5)	7 (10.8)
불교	3 (4.6)	9 (13.8)	1 (1.5)
기타	2 (3.1)	1 (1.5)	1 (1.5)
없음	27 (41.5)	13 (20.0)	31 (47.7)

주. *수입만족도는 1점(전혀 만족하지 않다)-5점(매우 만족한다) 척도로 측정되었음. † 주관적 신체건강 만족도는 1점(매우 나쁘다)-5점(매우 좋다) 척도로 측정되었음. ‡ 주관적 정신건강 만족도는 1점(매우 나쁘다)-5점(매우 좋다) 척도로 측정되었음.

2. 개인과 가족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층모형 분석

가. 가설검증

“상위 집단 내 가족 개개인의 종속변수인 우울이 유사할 것이다.”라는 다층모형 분석의 중요한 가설은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내 상관관계가 나타나(ICC= 0.40), 다층모형 분석의 적용가능성이 입증되었다. 즉, 아버지, 어머니,

자녀 우울에서 가족구성원들 간의 유사성이 나타났다(표 2).

표 2. 기술통계 및 집단 내 상관계수

(N = 195)

변수	아버지(n=65)	어머니(n=65)	자녀(n=65)	ρ	ICC
	M±SD	M±SD	M±SD		
우울	7.92±6.55	9.09±8.39	11.69±9.73	.016	0.40
성격특성					
외향성	2.95±0.64	3.03±0.73	3.30±0.69	.011	-0.02
친화성	3.69±0.75	3.66±0.61	3.44±0.51	.019	0.37
성실성	3.92±0.65	3.90±0.66	3.32±0.72	<.001	0.15
신경증	2.90±0.79	2.87±0.76	2.90±0.74	.964	0.13
개방성	3.23±0.81	3.35±0.74	3.51±0.95	.119	0.39

나. 다층모형 분석

다층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개인과 가족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독립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기초모형에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베이지안 정보 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은 1,341.9였으며, 개인과 가족의 성격 변수가 추가된 모형에서는 1,301.1 으로 나타났다. BIC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분산의 몇%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이때 작은 값이 더 좋은 모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과 가족의 성격변수가 우울의 분산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층모형 분석결과, 1차 수준의 변수들에서는 개인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beta=3.02$, $p=.004$)은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성실성($\beta=-3.68$, $p=.002$)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 성격은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수준인 가족 수준의 성격특성에서는 친화성($\beta=-6.35$, $p=.006$)은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성실성($\beta=5.24$, $p=.013$)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의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성격특성은 개인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경증이 높고 성실성이 낮은 개인은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며, 가족구성원들이 낮은 친화성과 높은 성실성의 성격을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을 때 그 가족의 개인은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다층모형분석 결과

변수	β	SE	p
절편	18.03	11.32	.113
통제 변수			
성별(남성)	-0.96	1.23	.434
연령	-0.05	0.05	.317
수입	-1.28	0.71	.074
개인 수준 변수			
외향성	-0.98	1.10	.370
친화성	1.87	1.33	.161
성실성	-3.68	1.15	.002
신경성	3.02	1.02	.004
개방성	0.69	0.97	.475
가족 수준 변수			
가족의 외향성			
평균	-0.73	2.24	.743
표준편차	0.39	2.13	.855
가족의 친화성			
평균	-6.35	2.31	.006
표준편차	-0.67	2.07	.747
가족의 성실성			
평균	5.24	2.08	.013
표준편차	1.63	1.78	.362
가족의 신경성			
평균	-0.09	1.74	.960
표준편차	2.21	1.73	.203
가족의 개방성			
평균	-0.10	1.58	.947
표준편차	0.59	1.87	.751

주. 종속변수: 가족 개개인의 우울 점수, β = 회귀계수, SE = 표준오차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을 대상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인 가족 안에서 개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을 다층적으로 개인의 성격특성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성격특성까지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족구성원 개인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이 높고 성실성이 낮을 때 우울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의 성격특성에서는 친화성이 낮고 성실성이 높을 때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가족의 성격은 가족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유사한 성격특성으로, 가족구성원들이 낮은 친화성과 높은 성실성을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을 때 그 가족의 개인은 우울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성격특성이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 분석한 선행연구(Kotov et al., 2010, p.800)에서 신경증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특성으로, 우울 뿐 아니라 불안, 중독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의 화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경성이 높을 때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Giannoni-Pastor et al., 2015, p.29). 신경증은 부정적인 정서 대 정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성격 요소로써,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낮은 신경증은 침착하고 차분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대로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세상과 문제를 위협적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감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Little, 2015, pp.60-62),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쉽게 우울해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실성은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으로 나타났다. 즉, 성실성이 낮은 개인은 우울을 높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메타 분석 연구(Kotov et al., 2010, p.804)에서는 낮은 성실성은 우울,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 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논하고 있다. 이는 성실성 점수가 낮은 사람은 목표와 계획이 없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이 부주의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우울 등 정신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Little, 2015, pp.54-57). 반대로, 성실성 점수가 높은 개인은 질서를 잘 지키며, 예의바르고, 목표 지향적이며 자기규율적이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은 학업과 직업에서 높은 성취감을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 우울감 또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McGregor, McAdams, & Little, 2006, p.568).

이 외에도 개방성과 외향성은 우울과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성격특성과 정신질환과의 관계를 메타 분석한 연구(Kotov et al., 2010, p.804)에서도 개방성과 외향성은 우울과 통계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상호작용, 새로운 환경을 수용하고 다양한 변화와 지적인 자극을 좋아하는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정신질환과도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적고 자극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낮은 외향성 점수를 갖은 사람은 기분부전장애와 사회 불안장애와 연관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가족의 다층자료를 분석하는 가족 연구에서 개인의 변수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그 개인이 속한 가족구성원의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Atkins, 2005, p.99)는 가정 하에, 가족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높은 성실성과 낮은 친화성의 성격특성을 가족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을 때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을 단위로 가족의 성격특성과 우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성실성의 점수가 높은 가족구성원이 모여 있는 가족 안에서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개인의 성격특성으로는 높은 성실성은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즉,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높은 성실성은 자신의 일을 조직적으로 열심히 시간 안에 해내는 성실한 모습으로 성취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낮추지만(Kotov et al., 2010, p.804), 가족구성원이 함께 성실성의 높은 평균치를 보이면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높은 성실성의 성격을 공유하게 되면 자기규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이러한 가족의 상호작용은 소진을 부추기고 우울에 취약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Little, 2015, p.88).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실성이 높은 가족구성원들의 어떠한 상호작용이 우울의 취약성을 높이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가족의 성격특성에서 높은 친화성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화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하고, 협조적으로 규정을 잘

준수하며, 공감을 잘하는 특성이 있어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환경에서 바람직한 성격 특성으로 간주된다(Templer, 2012, p.125). 이러한 친화성이 높은 가족구성원들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돕기 때문에 우울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반친화적인 가족은 서로 냉소적이고 불친절하여 가족 간에 불화를 경험하기 쉬우며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경향(Little, 2015, pp.57-59)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에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우울의 취약성을 개인과 가족구성원의 성격특성 안에서 보다 다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성격특성과 정신건강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가족자료 분석에 새로운 통계 방법을 소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특성과 가족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성격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우울에 취약한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격특성은 치료 반응을 예측하여 치료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Rammstedt & John, 2007, p.210), 우울증의 재발률을 낮추는데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간호사와 보건의료인력은 개인의 성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생활하는 가족 환경과 가족구성원의 성격특성 또한 고려하여 개인의 정신건강을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연구 결과는 가족을 대상으로 우울을 예방하는 간호중재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족(아버지, 어머니, 대학생 자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지 또한 수집된 가족 데이터를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행된 예비 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아 가족의 역할(아버지, 어머니, 대학생 자녀)에 따라 개인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표본크기를 증가하여 가족구성원 개인의 역할에 따라 개인 간, 그리고 개인변수와 가족변수의 상호작용이 가족 안에서 개인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가족단위의 설문지 회수율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단위의 연구대상자로부터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모두가 설문에 응답하기 쉽게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원 개인과 가족구성원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신경증이 높고 성실성이 낮은 개인은 우울이 높게 나타났고, 친화성이 낮고 성실성이 높은 가족에게서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과 가족의 성격특성을 다층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우울에 취약한 개인과 가족을 조기에 발견하고, 성격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중재방법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인 가족은 대상자의 성격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자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효과적인 가족 우울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석선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사, 정신간호학 석사학위를, 미국 University of Arizon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의 정신건강이며, 현재 대학생 가족의 우울-자살사고, 웹과 모바일 기반 가족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uksunkim@ewha.ac.kr)

길민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간호과학 학사와 정신간호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성인 애착, 우울, 감정표현이며, 현재 감정표현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mjgil@ewha.ac.kr)

참고문헌

- 권순일. (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S대 경영계열 학생을 중심으로. *경제경영연구*, 10(1), pp.1-29.
- 김미경, 김성현, 김성희. (2007). 정서성 및 성격적 특성과 가족 탄력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8(1), pp.395-409.
- 김선영, 김재민, 유준안, 배경열, 김성완, 양수진 등. (2010). 노인에서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의 표준화 및 타당도. *대한생물정신의학회*, 17(1), pp.15-25.
- 김춘경. (2000).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인심리학적 분석. *놀이치료연구*, 4(1), pp.35-49.
- 박봉길, 전석균. (2013). 중년기 위기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및 영성적 지지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38, pp.149-179.
- 박재연, 김정기. (2014).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 pp.167-189.
- 박준혁, 김기웅. (2011). 한국의 우울증 역학에 대한 고찰. *대한의사협회지*, 54(4), pp.362-369. doi:10.5124/jkma.2011.54.4.362.
- 보건복지부. (2011. 2. 15).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vJTumAHvGLMJ:www.index.go.kr/com/cmm/fms/FileDown.do%3Bjsessionid%3DPMQfaFbcwwSFRjCkmaFmXmb1Oz4WtOBfjxpkDbZl4kEzvE2k2LAS2KYwql8kQax4.wasgams1_servlet_engine1%3Fapnd_file_id%3D1441%26apnd_file_seq%3D5+%&cd=2&hl=ko&ct=clnk&gl=kr. 에서 2016.6.6. 인출.
- 송지은, 소향숙. (2015). 다층모형을 적용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의 질 변화 영향요인. *한국간호과학회*, 45(5), pp.694-703. doi:10.4040/jkan.2015.45.5.694.
- 이선미, 백종환, 윤영덕, 김재윤. (2013). **정신건강문제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우울증을 중심으로**.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 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pp.381-399.

- 최승혜, 이해영 (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pp.808-816. doi:10.5392/JKCA.2013.13.12.808.
- 하정희, 안성희. (2008).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pp.1149-1171.
- Arnett, J. (201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I: 10.1093/acprof:oso/9780199929382.001.0001.
- Atkins, D. C. (2005). Using multilevel models to analyze couple and family treatment data: Basic and advanced issu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1). pp.98-110. doi:10.1037/0893-3200.19.1.98.
- Carter, B. E., & McGoldrick, M. E. (1988).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Giannoni-Pastor, A., Goma-I-Freixanet, M., Valero, S., Kinori, S. F., Tasque-Cebrian, R., Arguello, J. M. et al. (2015). Personality as a predictor of depression symptoms in burn patients: A follow-up study. *Burns*, 41(1), pp.25-32. doi: 10.1016/j.burns.2014.07.028.
- Hofmann, D. A., & Jones, L. M. (2005). Leadership, collective personality, and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3), pp.509-522. doi: 10.1037/0021-9010.90.3.509.
- Hoffman, L. W. (1991). The influence of the family environment on personality: Accounting for sibling differ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10(2), pp.187-203.
- John, O. P., Naumann, L. P., & Soto, C. J. (2008).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 five trait taxonomy. In John O. P., Robins R. W., and Pervin L. A.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114-158). New York: Guilford Press.
- Klein, D. N., Kotov, R., & Bufferd, S. J. (2011). Personality and depression: Explanatory models and review of the evidence.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7, pp.269-295. doi: 10.1146/annurev-clinpsy-032210-104540.
- Kotov, R., Gamez, W., Schmidt, F., & Watson, D. (2010). Linking “big” personality

- traits to anxiety, depressive,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6(5), pp.768-821. doi:10.1037/a0020327.
- Little, B. R. (2015). 성격이란 무엇인가? (김창신, 역). 경기도: 김영사. (원서출판 2014).
- McCrae, R. R., & Costa, P. T.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pp.81-90.
- McGregor, I., McAdams, D. P., & Little, B. R. (2006). Personal projects, life stories, and happiness: On being true to trai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5), pp.551-572.
- Oh, I. S., Kim, S., & Van Iddekinge, C. H. (2015). Taking it to another level: Do personality-based human capital resources matter to firm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0(3), pp.935-947.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The Crisis and Its Aftermath*.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vJTumAHvGLMJ:www.index.go.kr/com/cmm/fms/FileDown.do%3Bjsessionid%3DPMQfaFbcwwSFRjCkmaFmXmb1Oz4WtOBfjxpkDbZl4kEzvE2k2LAS2KYwql8kQax4.wasgams1_servlet_engine1%3Fapnd_file_id%3D1441%26apnd_file_seq%3D5+%&cd=2&hl=ko&ct=clnk&gl=kr.에서 2016.6.6. 인출.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pp.385-401.
- Rammstedt B., & John, O. P. (2007). Measuring personality in one minute or less: A 10-item short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in English and Germa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1), pp.203-212. doi:10.1016/j.jrp.2006.02.001.
- Templer, K. J. (2012).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job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agreeableness in a tight and collectivistic asian society. *Applied Psychology*, 61(1), pp.114-129. doi:10.1111/j.1464-0597.2011.00459.x.
- Varcarolis, E. M. (Eds) (2014). *Essentials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p.248). (2nd Ed). New York: Elsevier Health Sciences.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 of Individual and Family Personalities on Depressive Symptoms in Families with College Students

Kim, Suk-Sun

(Ewha Womans Universty)

Gil, Minji

(Ewha Womans Univer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individual and family person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families with college students. This pilot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and acceptability of recruiting and collecting data from families and to analyze data using Multilevel Modeling. A total of 195 family members (65 fathers, 65 mothers, and 65 college-student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level modeling. Our analysis revealed that individual-level neuroticism was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and conscientiousn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Also, family-level agreeableness was related to lower depressive symptoms, whereas family conscientiousness was related to higher depressive symptom level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ersonality factors could be used to identify individuals and families at risk for depression and to develop tailored intervention for both individuals and families.

Keywords: College Students, Depression, Multilevel Analysis, Personality, Family Personality